"北, 6자보다 美와 직접대화 원해"

"북한 내부 차분" 美 북한전문가 방북 마쳐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대외행보와 온도차

3박4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중국 베이징으로 돌아온 미국의 북한 전문가 조너선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상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폴락 교수는 지난 7일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만 다자 협상보다는 북·미간 직접 대화를 선호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폴락 교수는 "이번 방문에서 북한 외무성과 무역성, 인민군 등 북한의 각 기관의 고위관리와 만나 10여회에 가까운 회담을 벌였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북핵 6자회담에서 급격한 진전이나 조속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 보였고 어쨌든 북한은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두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현재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7일) 북한도 서두르지 않고 있어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은 받지 않았다(8일)"고 소감을 전했다.

방북단의 일원이었던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는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고하는 것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면서 "그들은 인내심을 표명했고 경고성 메시지를 낸다거나, 조급해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보즈워스 전 대사는 "북한은 미사일 이슈를 평범하고 일반적인 이슈로 다루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과 오바마 행정부와의 양자협상 개시 가능성에 언급,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북한 역시 6자회담과 북·미간 양자 협상을 모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원론적인 입장을 자주 밝히고 장거리미사일인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등 대외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과는 다소 온도차가 있다.

우리 외교 당국은 미국 전문가들의 이번 방북이 오바마 정부와의 교감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민간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방북단은 방북에 앞서 미 정부와 사전 협의를 갖지 않았으며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따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8일 "이번 방북은 민간 차원의 방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북단이 전한 북한의 입장도 우리의 추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베이징을 거쳐 이날 한국을 찾은 일부 방북단은 한국에서 전문가들과 방북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뒤 9일 일본으로 향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원자바오 "신발 던진 학생 용서"

英 케임브리지대 총장 공식 사과

원자바오(사진) 중국 총리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의 특강 도중 자신에게 신발을 던진 학생을 사실상 용서했다.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런던발 기사에서 푸잉 주영 중국대사가 중국에 사과를 하러 온 엘리스 리처드 케임브리지대 총장에게 원 총리의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고 8일 보도했다.

원 총리는 푸잉 대사를 통해 리처드 총장에게 "젊은 학생들은 공부가 위주가 돼야 한다"면서 "학교측이 이 학생에게 계속 공부할 기회를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원 총리는 또 '방탕한 자식이 회개하는 것은 금을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소중하다(浪子回頭金不換)'란 중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더욱 발전된 안목으로 중국의 진면모를 제대로 이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리처드 총장은 이 학교에서 강연도중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학교 차원에서 공식 사과했다.

리처드 총장은 독일 국적으로 알려진 이 학생이 직접 쓴 편지를 푸잉 대사에게 전달했다. 이 학생은 사과편지에서 "원 총리의 강연 도중 소동을 피운 것에 대해 중국 인민과 원 총리께 사과한다"면서 "저의 행동은 대학에 온 손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서 크게 벗어난 경솔한 행동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케임브리지대학에서 원 총리가 강연을 하던 중 한 남학생이 원 총리를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 신발을 단상으로 던진 바 있다. /연합뉴스

스리랑카 민간인 1만명 반군 점령지에서 피신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북부 반군 점령지역에서 지난 이틀 새 1만여명의 민간인이 피신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8일 밝혔다.

최근 몇 달간 이어진 정부군의 공세로 반군이 대패해 25년간 이어진 내전 종식을 사실상 눈앞에 둔 상황에서 유엔과 구호단체들은 반군 점령지에 갇혀 있는 민간인 25만여명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왔다.

정부군 대변인 우다야 나나야카라는 지난 6일 5천명의 민간인들이 교전지역을 벗어나 정부군 점령 지역으로 이동했으며 7일에도 5천600여명이 추가로 빠져나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지난 7일(현지 시각) 호주 멜버른 서쪽 125㎞ 지점 토님벅 부근의 수풀 화재를 진화하던 소방차 1대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불길로부터 벗어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호주 최악 산불…최소 76명 사망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산불로 8일 오후 8시(현지시간) 현재 모두 76명이 불에 타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산불은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종전까지 최악의 산불은 1983년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했으며 모두 75명의 희생자를 냈다.

산불로 목숨을 잃은 주민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 확실한 가운데 구조팀은 어둠이 깔리면서 더이상 구조나 사망자 추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불은 당국의 진화작업에도 불구하고 열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어 폭우가 내리지 않는 한 당장 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산불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주민들에게 진화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면 곧바로 대피하도록 통보했다.

정부는 사망자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정확한 사망자 수는 9일 날이 밝아야 점진적인 확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가옥 600여채가 전소됐으며 최소한 20만ha의 삼림이 불에 탔다.

당국은 멜버른 북쪽 킹레이크 지역에서 25구의 시신을 찾아냈다. 킬모어에서는 최소 100채 이상의 주택이 화염에 휩싸였고 산불 진압에 나선 한 소방관은 온몸의 절반 가량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다. 빅토리아주 호샴 인근의 골프장 1천800만㎡도 불탔다. 주말인 7일부터 휴일인 이날까지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무려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지난달말부터 빅토리아주에 몰아닥친 폭염과 가뭄으로 자연발생적인 산불이 잇달면서 화재진압에 나섰으나 역부족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마다가스카르軍, 시위대에 발포 수십명 사망

아프리카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의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7일(현지시간) 군인들이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발포, 수십명이 숨지면서 정정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에 의해 해임된 안드리 라조에리나 안타나나리보 시장을 지지하는 시민 2만5천여명은 이날 오후 도심에서 집회를 마친 뒤 대통령궁을 향해 행진에 나섰으며, 이에 대통령궁 경비대가 총격을 가하면서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다.

이와 관련,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현지 경찰과 방송 보도 등을 인용, 이번 발포로 23~40명이 사망하고 80~300여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6일부터 본격화된 이번 소요 사태는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대통령과 라조에리나 시장 간 갈등에서 촉발됐다. /연합뉴스